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In-Sook Kim*, Min-Jeong Son, Hye-Gyeong Park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졸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진로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책임지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로인해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과 전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 대상자는 M전문대 1-3학년 대학생 30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9.30~10.7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진로환경조성 18%, 진로몰입의지 27%, 계획 및 점검 18%, 진로피드백 12%, 긍정적사고 22%로 나타났으며 진로몰입의지가 진로정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인식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이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전공이나 직업선택에 갈등을 낮추고, 그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취업준비나 직업선택에 자신감과 인생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직업지도프로그램과 진로상담 등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n society believes that graduating from university is essential but even though choosing a career is important because of this social phenomenon, teenagers or the younger generation lack many aspects to choose or take responsibility of their career. Therefore, they are affected by others and this study explores how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affects their self-career control and major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00 students of M college ranging from freshmen to juniors. The research period was 2015.09.30~10.07. Among the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career identity affecting self-career control are career environment setting 18%, career commitment will 27%, planning and examining 18%, career feedback 12%, positive thinking 22% and study shows that career commitment will has a large impact on career identity. Second, the results of how career identity affects major satisfaction revealed that recognition satisfaction, relation satisfaction, and normal satisfaction have a large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This analysis result concludes that a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lowers the conflict of choosing a major or job and with a higher satisfaction of their major, can obtain self-confidence of choosing a job, searching for a job, and setting a life goal. Therefore, in order to raise career identity, colleges need to research and develop career guidance programs and career counseling.

Keywords : Career identity, Career self control, Caree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Kim(Kyonggi Univ.)
Tel: +82-10-3262-4397 email: diane15@hanmail.net

Received October 19, 2016
Accepted February 3, 2017

Revised (1st January 2, 2017, 2nd January 23, 2017, 3r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졸업을 필수로 인식하고, 인생이 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대학을 졸업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들이 많고 일정 수준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1]. 이러한 영향으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 친척(71%), 친구나 선배(21.0%), 교사(3.8%)등의 순서로[2].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배제하고 학교 서열 및 합격위주의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학교 상담 장면에서의 주 호소문제가 진로문제임을 밝히고 있다[3-5].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 다양한 직업의 발달과 변화 등 다기능을 요구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합리적인 진로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영향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갖고 진로결정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진로정체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6]. 또한 졸업 후 노동시장에 신규 입직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진로정체감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진로정체감 확립은 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연령(12-18세)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제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로 인해서 대학 입학이후로 유보되고 있다.

그 결과 막상 대학에 입학한 후 선택한 전공에 불만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거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계획이 없이 무의미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앞두고거나 졸업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나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막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진로자기조절과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 이전에 진로정체감을 확고히 하는 적

절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정체감

Holland의 직업선택이론은 진로정체감이 발달 할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명확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정체감 검사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동수준이 높고 직업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진로정체감은 부모진로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진로결정과 선택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문화는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자신에 대한 확신감, 진로결정에서 자신감과 독립심,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9],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10],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1].

Tiedman과 O'Hara(1963)[12]는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적응의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7], [13], [10], [11]. 또한 진로정체감은 개인특성, 부모관여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14], 부모의 지지 및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지고[15], 진로집단상담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2.2 진로자기조절

진로자기조절이란 개인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되

어지는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며, 계획되어진 자기 - 발생적 사고, 느낌, 행동을 의미한다[17]. 개인이 만족스러운 진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여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를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수행해야한다[18]. 따라서 진로발달 과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진로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위험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진로목표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진로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진로자기조절이라고 정의하였다[17].

진로자기조절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대학행정직원들이 학생에 대한 서비스지향성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으며[19], 학업성취수준, 학교특성에 따라 자기조절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0]. 진로자기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지, 진로결정에 진로자기조절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진로자기조절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진로자기조절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획 및 점검 : 자신과 일에 대한 탐색을 계획하고, 달성과정을 점검함.
- ② 긍정적 진로사고 : 진로에 대해 생각하며,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함
- ③ 진로피드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구함
- ④ 진로환경조성 : 진로목표를 자주 상기하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함
- ⑤ 진로몰입의지 : 진로활동에 집중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함.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대·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2].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교 및 전공에 대한 만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한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교와 전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기려는 경향 역시 낮아지게 된다[23-24]. 또한 개인의 흥미가 전공과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전공학과에 잘 적응하고, 향후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과 만족도도 높아진다[25]. 반면에 전공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성숙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6], 자기주도성과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도 있었다[27]. 또한 전공만족도는 전공-흥미 일치도에도 영향을 주었다[28]

본 연구는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대 2-3년제의 대학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전공만족도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교과만족 : 전공교과목의 편성, 교과내용, 교과목간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
- ② 인식만족 :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 ③ 관계만족 : 학교생활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 ④ 수업만족 : 수업의 분위기나 내용, 수업진행 방식 등에 대한 만족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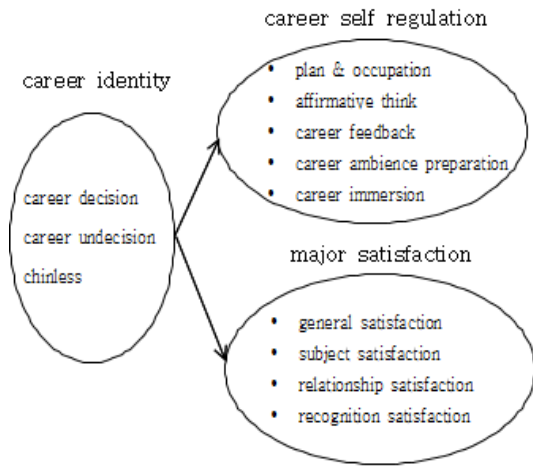


Fig. 3-1. research model

3.2 가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정하였다.

가설 I: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이 진로자기조절(계획 및 점거, 긍정적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가설 II: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이 전공만족도(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사전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5. 9. 30. ~ 10. 7.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명지전문대학 1-3학년 대

학생으로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3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을 한 응답지를 제외한 나머지 296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하여 측정도구인 진로정체감,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자기조절검사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정체감,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넷째, 진로정체감,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진로정체감 수준을 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 무결정[14]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자기조절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김민정[17]이 개발한 진로자기조절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계획 및 점거, 긍정적진로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송운정[29]이 개발한 전공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만들었다.

5. 실증분석결과

5.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3명(68.6%), 여자 93명(31.4%) 등이 전공 선택 시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아서 88명(29.7%), 흥미적성에 맞고 어려서부터 희망이 146명(49.3%)등이다. 또한 전공 선택 영향력은 본인의사가 194명(65.6%)로 월등히 높은 부분을 보이며 주위의 영향력은 34.4%를 차지한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03	68.6
	female	93	31.4
Grade	grade 1	155	52.4
	grade 2	121	40.9
	grade 3	20	6.7
Major choice motives	Aptitude	56	18.9
	Interest	67	22.6
	Recommendation	25	8.5
	Employment prospect	88	29.7
	Grade	37	12.5
	Childhood hope	23	7.8
Major choice effectiveness	Parents	53	17.9
	Teacher	21	7.1
	Sibling	11	3.7
	Friends	17	5.7
	Self decision	194	65.6
	Information	0	

5.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진로정체감[표 2]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진로결정 4문항(8-11), 우유부단 4문항(12-15), 진로미결정 7문항(1-7) 등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자기조절[표 3]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계획 및 점거 5문항(11-15), 긍정적사고 5문항(20-24) 진로피드백 4문항(16-19), 진로환경조성 5문항(1-5), 진로몰입의지 5문항(6-10)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일반만족 4문항(8-11), 관계만족 6문항(11-17), 인식만족 7문항(1-7),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변인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2. Career identity Question

Question	
I will follow parents and surrounding people's career recommendation	①
I will choose parents wated career	②
I will choose parent's files of work	③
I don't have much career thinking time until now.	④
As I don't know my interest and aptitude, I can't choose my career	⑤
Parents would like give me major and career recommendation but I can't decide at all	⑥
There is no chance to decide my career by my self	⑦
I decide my career by myself	⑧
I already prepared career planning to get interesting job	⑨
I am confident of success in my working field	⑩
Complete my final career path decision	⑪
I have no decision for future being	⑫
I have job I my mind but can't make decision	⑬
I have been wondering where should I working in the future	⑭
I have been wondering my career path but it is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⑮

Table 2-1. Career identity Factor analysis

Question	Careerpen dency	Career decision	Indecision
①	.79		
②	.77		
③	.75		
④	.60		
⑤	.60		
⑥	.53		
⑦	.42		
⑧		.82	
⑨		.82	
⑩		.63	
⑪		.62	
⑫			.76
⑬			.71
⑭			.66
⑮			.58

Table 3. Career self-regulated Question

Question	
There is a people who can be my role model.	①
Put the job list where it can be easily seen.	②
Put the goal achievement story where it can be easily seen	③
Take a look at some of the successful people (photo, writing) in the job filed	④
Put wish list after joining job where it can be easily seen	⑤
I can spend my time related job activity though I am busy	⑥
Check related job information	⑦
I am one of the people joining out when preparing career path	⑧
Though understanding my career work is tiring and tedious, I will do my best	⑨
Make steady career preparation	⑩
Make career goal plan on a realistic basis	⑪
Make long and short plan to find wishable career path	⑫
Write to do list to get a job	⑬
Check evaluation inspection to progress	⑭
Make check list (certification, grade, activity)and evaluate inspection	⑮
Get inspiration and comfort while talking about career path with friends	⑯
Comforted by the emotional support by surrounding people for not having career path	⑰
Supported encouragement by knowing my career path to others	⑱
Request advices building career path from others	⑲
Seriously considered my career while thinking my aptitude	⑳
Imagine myself being my role model	㉑
Consider job matching with my values	㉒
I can get a job being happy working in there	㉓
Can imagine the achievement of goals	㉔

Table 3-1. Career self-regulated Factor analysis

Question	Career environment composition	Career immersion will	Planning and checking	Career feedback	Positive thinking
①	.86				
②	.78				
③	.77				
④	.71				
⑤	.58				
⑥		.77			
⑦		.72			
⑧		.70			
⑨		.69			
⑩		.61			

⑪		.81		
⑫		.76		
⑬		.70		
⑭		.68		
⑮		.45		
⑯			.83	
⑰			.83	
⑱			.69	
⑲			.66	
㉑				.67
㉒				.65
㉓				.65
㉔				.65
㉕				.63

Table 4. Major satisfaction Question

Question	
Most people would like to join my department of major	①
I think my department of major is popular departments	②
My parents proud of my major	③
I would like to speak about my major proudly to others	④
My major gains an advantage to get a job	⑤
My major helps my career path after graduation	⑥
I can feel that I am learning precious things from my major	⑦
My major course works well to me	⑧
I have interest about my major course	⑨
My major has proper reasons to study for me.	⑩
I am satisfied with my major	⑪
I can meet professor anytime if I want	⑫
I can get efficient studying way advices from processor	⑬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communication works smoothly	⑭
Credits score is given fairly	⑮
It is valuable to study my major	⑯
Major professors are explain goal clearly and easy to understand	⑰

Table 4-1. Major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Question	Awareness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Relation satisfaction
①	.82		
②	.77		
③	.67		
④	.70		
⑤	.62		
⑥	.60		
⑦	.60		

⑧		.71	
⑨		.71	
⑩		.62	
⑪		.58	
⑫			.76
⑬			.72
⑭			.68
⑮			.59
⑯			.67
⑰			.63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N	Cronbach's α
Career identity	Career pendency	7	.80
	Career decision	4	.75
	Indecision	4	.71
Career self-regulated	Planning and checking	5	.83
	Positive thinking	5	.78
	Career feedback	4	.83
	Career environment composition	5	.89
	Career immersion will	5	.84
	General satisfaction	4	.79
Career satisfaction	Awareness satisfaction	7	.89
	Relation satisfaction	6	.83

5.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을 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 등의 3개로 설정하였으며, 진로 자기조절은 진로 환경 조성, 진로 몰입 의지, 계획 및 점검, 진로 피드백, 긍정적 사고 5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그 결과이다.

진로환경조성은 진로결정($\beta=.42$), 진로몰입의지 역시 진로결정($\beta=.5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획 및 점검도 진로결정($\beta=.41$), 진로피드백 역시 진로결정($\beta=.37$)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사고 역시 진로결정($\beta=.43$), 진로미결정($\beta=-.14$)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진로정체감 중 진로결정 요인이 진로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7],

[21], [10], [11]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에서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행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 주위 사람, 선생님 등의 의견으로 진로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종종 이루어지는데,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경향이 많아, 개인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되어지는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며, 계획되어진 자기 - 발생적 사고, 느낌, 행동을 의미한다.

Table 6. Career identity impact on career self contro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2
Career environment composition	Career pendency	.20**	22.46***	.18
	Career decision	.42***		
	Indecision	-.40		
Career immersion will	Career pendency	.02	38.00***	.27
	Career decision	.54***		
	Indecision	.02		
Planning and checking	Career pendency	.08	22.05***	.18
	Career decision	.41***		
	Indecision	-.08		
Career feedback	Career pendency	-.06	13.75***	.12
	Career decision	.37***		
	Indecision	.19**		
Positive thinking	Career pendency	-.14*	28.33***	.22
	Career decision	.43***		
	Indecision	.04		

*** $p<.001$, ** $p<.01$, * $p<.05$

5.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을 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 등의 3개로 설정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교과만족을 제외한 인식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등 3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7]은 그 결과이다.

인식만족은 진로결정($\beta=.43$), 관계만족도 진로결정($\beta=.04$)과 우유부단($\beta=.0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일반만족도 진로결정($\beta=.0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정체감 중 진로결정 요인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rikson의 정체감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와 관련된 정체감 또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의 수준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30]는 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선택 시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성적에 맞추어서, 또는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등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의 선택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로 인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갈등으로 전과를 하거나 수업에 집중을 못해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진로갈등은 대학에서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해서도 적응인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Table 7. career identity impact on majo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F	R ²
Awareness satisfaction	Career pendency	-.10	22.62***	.18
	Career decision	.43***		
	Indecision	.07		
Relation satisfaction	Career pendency	.05	10.49***	.09
	Career decision	.04***		
	Indecision	.06*		
General satisfaction	Career pendency	-.07	13.52***	.11
	Career decision	.06***		
	Indecision	.08		

* $p<.05$, *** $p<.001$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 계획 및 점검, 진로피드백, 긍정적사고, 인식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환경조성 18%, 진로몰입의지 27%, 계획 및 점검 18%, 진로피드백 12%, 긍정적사고 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중에서도 특히 진로결정이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 계획 및 점검, 진로피드백, 긍정적사고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10] 및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11]들에서 주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청년기에 주요발달과업인 진로정체감을 그 시기에 확고하게 과업을 발달시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식만족 18%, 관계만족9%, 일반만족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중에서도 특히 진로결정이 인식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파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보고한 연구[22] 및 개인의 흥미가 전공과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전공학과에 잘 적응하고, 향후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25]들에서 주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로결정을 할 시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만 잘 적응할 수 있고 또한 직업선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2-3학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짧은 기간에 기술과 지식을 익혀 취업해야 하는 환경이라서 2-3학년 대학생의 요인분석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기에는 연구의 한계로 인해 4년제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중에서 진로결정이 진로자기조절과 전공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는 진로결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위주의 진로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못한 진로결

정을 하고 있다[31].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학 입학 후 전공만족이나 졸업 후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잘 된다는 명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에서 가장 큰 동기의 질문에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40.0%), 주변의 권유(22.0%)로 적성과 흥미가 맞을 것 같다(23.6%), 점수에 맞춰서(14.3%)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공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본인의사(41.6%), 부모(30.1%), 주위사람(담임교사, 형제, 친구 등, 28.3%)등, 의견이 58.4%로 분석되었다.[21]. 이 결과는 보건전문대학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결과다, 하지만 입학한 후 한 달이 지나면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전공한 학생이나, 점수로 지원을 하거나, 취업이 잘된다는 지원동기로 학교를 입학한 경우 자퇴나 휴학을 선택하거나 전공의 갈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학생들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시 진로선택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위의 결과[18]와 같은 내용으로 진로결정을 하여 진로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전공갈등으로 졸업 후의 직업선택에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동시장 신규입직에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자(3년제 이하포함)의 평균졸업소요기간은 4년 1.5개월, 휴학경험 비율은 40.3%였다.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은 5년 0.4개월(남학생 6년 2.2개월, 여학생 4년 3.6개월)이다. 평균휴학기간은 2년 3.5개월(남학생 2년 7.4개월, 여학생 1년 4.4개월)이다. 남학생들은 병역관계로 휴학을 하지만 여학생들도 휴학이 16.4개월이나 되어 예상외로 높았다. 취업이 어려운 현재 소위 말하는 스펙준비를 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NG(No Graduation)', '5학년생'이 대학마다 넘쳐나고 있다. 2-3년제 대학생은 4년제 대학으로, 4년제 대학생은 대학원진학으로 학업을 연장하는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11개월이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4개월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취업시험준비 현황에서 일반직공무원(34.9%), 기능분야(22.9%), 언론. 일반기업(27.4%), 기타(임용, 고시 등 14.8%)등으로 일반공무원 취업 시험준비가 높았다. 또한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0개월,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1년 6.4개월이었으며, 그만둔 사유는 근로여건불만족(보수, 근

로시간 등) 47.7%이 가장 높았다.

이런 현상은 3-4학년 진로상담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이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갈등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공무관이며, 부모님이 권유로 공무원시험공부를 선택하며, 또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 중에는 스펙준비가 안돼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노동시장의 신규입직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현재의 노동시장의 흐름과 세태에 맞추어(공무원 시험공부 34.9%)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력자로서의 근속기간도 짧아지고, 힘들고 어렵고, 끈기가 없어서 자주 이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의 저하로 청년구직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경력직을 선호하여 신규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취업난이 더욱 지속되는 상황으로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따른 취업준비 방법이나 진로 선택 수준에 대해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다고 해도 결국 대학 진학 시 점수에 맞추어서 진로결정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갈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입직 시에도 진로 정체성에 힘들어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므로, 대학 입학 시 전공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나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직업지도나 진로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단상담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진로상담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대학마다 진로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제도가 많지 않고, 진로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 상담이 아닌 계절적인 상담으로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를 하여 대학생의 진로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 노동시장 입직 시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으며 취업준비 및 자신의 인생목표를 설정하여 직업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hang Sun Lee, The Influence of Adaptation and Parental Career Support on the Career Identity of Students who Prepare Study Abroad. Graduate School Educ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2.
- [2] Jae Chang Lee, Psychology for human understanding. Mununsa, 2002.
- [3] Soon Jeun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4] Un Jin Kim, The Effect of Psychological from Parents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 Mediated by Ego-Identity Statu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1.
- [5] Seung Min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2003.
- [6]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7] Harren, V.A,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14, 119-133, 1979.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s://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8] Hye Seung Yoo, The Career Identity of Korean College Students. doctor's degree of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4.
- [9] Un Kaeng Lee, Hye Sung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09-120, 2002
- [10] In Hwa Choi,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l-External Control,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1998.
- [11] Hea Gyong H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type according to career undecided model.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12] Tiedman, D.V.& O'Hara, R. P.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rad, 1963.
- [13] Savickas, M. L.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29-337, 1985.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0-5](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0-5)
- [14] Min Jeong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Involvement Types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1.
- [15] Eun Suk kim,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and areer Identity Perceived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11.
- [16] Mi Hwa Choi, Impa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2011.
- [17] Min Jung Kim,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 - Regulation,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Career search behavior. doctor's degree of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014.
- [18] Osipow, S. H. The Career Decision Scale: How good does it have to b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 15-18, 1994.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400200102>
- [19] Chung Mu Lee,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upport, Loyalty, and self-regulation on service orient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07.
- [20] Yeong Sik Mun, An Analysis on the Components of Academic Self-regulated Ability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08.
- [21] In Ja Lee, In Sook Kim,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Career Self - Regulation, and Career Identity.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38(3), 229-238, 2015.
- [22] Hye Suk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23] Won Hyung Kim, Exploratory Cross cultural study of Alma mate identificatio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5(2), 25-45, 2002.
- [24] Eun Kyung Jeon, Eun Kyung Chang, Kyu Hye Lee, Satisfaction Factors for a Clothing and Textiles Major : A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9), 1614-1620, 2001.
- [25]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26] Kwang Won Ja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Compromise Patterns,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2011
- [27] Myung Sook Kang,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Impalpability,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2015.
- [28] Won Sook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in University, 2008.
- [29] Yun Jeong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s degree of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2013.
- [30] Marcia, J.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1980.
- [31] Jae Chang Lee, A Study of research of Career Education development pla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2, 1994.

김 인 숙(In-Sook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09년 3월 ~ 2011년 8월 : 경기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1998년 2월 ~ 2010년 12월 : 고용
노동부 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
기보
- 2011년 3월 ~ 현재 : 동남대, 서울
간호대, 명지전문대 외래강사

<관심분야>

성격심리, 진로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심리학

손 민 정(Min-Jeong Son)

[정회원]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
원 직업학 석사
- 2009년 3월 ~ 2011년 8월 : 경기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00년 9월 ~ 2009년 7월 : 고용
노동부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기
보
- 2009년 8월 ~ 2011년 7월 : 가톨
릭 대학교 취업지도연구위원
- 2013년 3월 ~ 2014년 12월 : 강남대학교취업정보센터 산
학협력중점교수
- 2015년 8월 ~ 2016년 10월 :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사무
국장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직업정보

박 혜 경(Hye-Gyeong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
원 직업학 석사
- 2013년 3월 ~ 2016년 8월 : 경기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00년 9월 ~ 현재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기보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다문화